샬롬~ 잘 오셨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문이나 처음 출석하신 분들께서는 예배위원들의 안내를 받아 친교실로 가셔서 목사님, 교우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 교회소식

1. 2026년 교회표어(2026 Vision Statement) "사막에 강을 내리라!"(이사야 43:19), "I will make rivers in the desert!" (Isaiah 43:19) — 사막에 강을 내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봄으로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주의 길과 생명의 강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2. 수요저녁예배(Wednesday Evening Worship) 수요저녁예배가 오후 8시에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주제로 예배를 드리고, 합심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3. EM/유쓰 기도요청(Pray for EM and Youth Ministry) EM과 유쓰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로 동참5주시기를 바랍니다.
4. 크리스마스 선물상자 보내기 (Operation Christmas Child) 매년 주일학교에서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세계 각 곳의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상자 보내기(OCC)"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선물상자에는 아이들 연령에 적당한 필수품과 장난감, 그리고 전도지가 들어갑니다. 지난해에도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53개의 선물상자를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보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께서 기도와 헌금(donation)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물상자 하나 당 선물과 운송비 $10을 포함해서 약 $30 정도 소요됩니다. 체크로 헌금을 하실 때 "OCC"라고 메모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상자를 직접 만들어 오실 분들은 상자를 교회에서 픽업하셔서 11/15주일까지 선물상자를 교회로 가져오시면 됩니다(세관통과 때문에 내용품에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 함께 모여 선물상자를 만들려고 하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선물상자 만들기: 시간과 장소는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문의: 이재화사모(443-996-9277)
5. 심방요청(Request for Pastor's Visit) 목사님의 심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부 심방팀에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송명희 집사 301-613-0337)
6. 지난 주일 예배통계(Last Week's Statistics):
   11/1 주일예배 출석합계: 26명(1부, 2부22, EM4, 유아2) 헌금합계: $1,791.00(OCC $330 포함)

◈ 교우동정 및 중보기도 —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한명우 집사: 심장판막 역류증 회복
2. 오명현 권사: 치유와 건강 회복
3. 강무줄 권사: 건강과 평안
4. 박정숙 권사: 허리와 다리 통증 회복
5. 이고은: 치유의 기적
6. 박성아 집사: 리엘의 건강한 성장
7. 제시카: 손과 목과 눈꺼풀이 떨리는 증상
8. 송명희 집사: 한국 방문(10/14 ~ 11/16)

2026년 교회표어 성구(2026 Vision Scripture Verse):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이사야 43:19)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 now it springs forth, do you not perceive it? I will make a way in the wilderness and rivers in the desert. (Isaiah 43:19)

MADE IN KOREA 저작권보호 1176호 www.cyber.co.kr

메릴랜드

소망교회

KOREAN HOPE CHURCH OF MARYLAND

2026년 11월 8일

"사막에 강을 내리라!"(이사야 43:19)
"I will make rivers in the desert!" (Isaiah 43:19)

✝ 쉼과 나눔이 있는 교회
✝ 사도행전적인 교회
✝ 믿음 성장이 있는 교회
✝ 교회개척적인 교회



교 회: 14135 Burntwoods Road, Glenwood, MD 21738
(c/o Burntwoods Church)

홈페이지: http://mdhopechurch.org

주일설교 영상(youtube): http://goo.gl/numaZS

담임목사 (Lead Pastor) : 이웅기 (Woongki Lee) ☎ 443-396-3097 (목사관)

대면예배 1:30pm / 라이브스트리밍 8:00am 2026년 11월 8일

주일예배 순서
Sunday Worship Program

인도(Presider): 이웅기 목사
Pastor Woongki LEE

[* 일어섭니다/Please stand.]

광고 Announcements ..... Presider 인도자

경배와 찬양 Worship & Praise ..... All Together 다같이

묵도 Opening Prayer* ..... Presider 인도자

교독문 Responsive Reading* .....8번(시편 14편)..... 다같이
No. 8: Psalm 14 All Together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Apostles' Creed)..... All Together 다같이

대표기도 Prayer .....홍진수 전도사
Minister Jin Soo HONG

찬양 Hymn .....25장 면류관 벗어서(통25)..... 다같이
Crown Him with Many Crowns All Together

헌금봉헌 Offertory* ..... 다같이
All Together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사도행전(Acts) 28:1~15.....,.....교독/다같이
Response Reading/Together

말씀선포 Message.....**조금도 상함이 없더라**.....이웅기 목사
Pastor Woongki LEE

헌신의 찬송 Hymn.....406장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통464)..... 다같이
I Have Found Sweet Rest All Together

축도 Benediction* .....이웅기 목사
Pastor Woongki LEE

함께 기도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마7:7)

-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교회와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소서
- 성도들 가정에 평안과 건강을 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부족한 것 없도록 채워주소서
-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 EM, YM 예배가 부흥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소서
-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지켜주소서 — 학업 성취, 취업, 성실한 직장생활, 좋은 친구, 결혼 등등

오늘의 말씀 메모합시다!

이것만은 꼭 기억합시다!

지난 주 설교: 빛의 갑옷을 입자
(롬 13:12)

로마서 13장 12절은 밤이 깊다는 현실과 낮이 가깝다는 소망을 함께 놓습니다. 전쟁과 위협, 힘이 지배하는 국제정치와 하나님을 떠나는 문화는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밤이 깊어지면 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빛의 때가 다가온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절망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다가오는 아침을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그 준비를 어둠의 일을 벗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다툼과 시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탐욕과 교만과 미움은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서도 자랍니다. 돈이 최고라는 생각이 깊이 뿌리내리면 어려운 이웃의 형편보다 부동산 가격이 앞서게 됩니다. 탈북 청소년들의 학교마저 자기 이익 때문에 밀어내는 모습은 회개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드러냅니다. 높은 사람과 관계를 맺어 자기 신분을 높이려는 욕망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움을 벗었으면 사랑을 입고, 시기를 벗었으면 자비를 입어야 합니다. 거짓 대신 진실을, 교만 대신 겸손을, 탐욕 대신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벗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적극적인 신앙이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빛의 자녀라는 부르심이 좋은 형편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박해와 순교의 어둠이 있었습니다. 빛의 갑옷은 잠깐 입었다가 벗는 옷이 아닙니다. 신자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으며 인내해야 합니다. 대적의 활동이 집요하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데에는 계속되는 싸움이 따릅니다. 난민을 환대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일은 그 갑옷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 줍니다. 아무런 대가를 돌려주지 못하거나 도움만 바라며 찾아오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떠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서 빛을 발하게 합니다. 신자는 홀로 싸우지 않습니다. 앞서 싸우시는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두려움 없이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11/15/26 예배순서 담당자		대표기도	성경봉독	헌금 / 안내위원
	장년, EM/유쓰 예배	대면예배 오후1:30 / 라이브스트리밍 오전8:00		
	2부 대면예배	소병전 안수집사	교독 / 다같이	TBD